

2015 관악구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 목 차

I. 들어가며	4p
II.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5p
2. 면접조사 개요	7p
III. 조사결과	
1. 직·간접 체벌 및 폭언	8p
2. 두발 및 복장	14p
3. 강제학습	18p
4. 소지품 검사 및 압수	21p
5. 우열반 및 성적에 따른 차별	25p
6. 그 외 인권침해	28p
IV. 마치며	31p
부록 1. 관악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지	
부록 2. 관악 학생인권실태조사 거리 설문조사 사진	32p

## I. 들어가며

최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전국의 6,261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법정 근로시간과 비슷한 시간인 평균 6시간 20분, 중학생은 8시간 3분, 인문계열고 학생은 12시간 1분, 특성화고 학생은 10시간 4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적게는 하루의 1/3을, 많게는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은 지금 학생들에게 어떠한 공간인가? 대다수 학생들의 일상에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학생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인문계고 학생 86.6%, 초등학생 43%, 중학생 71.8%가 “학업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하는 등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장시간의 공부와 치열한 입시경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OECD 청소년 평균 학습시간이 주 33.92시간인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이다.

그러나 그간의 결과들로 유추하였을 때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혀 유쾌하거나 편한 공간이 아니다. 2014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학생의 두발과 복장, 사생활을 단속하고 체벌과 같은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었다. 2012년 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져 시행 된지 4년째가 되어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복장과 두발의 자유, 체벌금지 등 학교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학생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반인권적인 학교 방침들은 ‘입시’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8월 청소년들이 창립하여 청소년의 지역참여와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관악청소년연대 <여유>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관악구 청소년축제, 청소년 인권 교육 등 구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15년 <여유>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관악구의 중·고등학생의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5 관악구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체벌(폭력) ▲두발·복장 규제 ▲강제학습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우열반 및 성적에 따른 차별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의제들에 집중하여 관악구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상당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구내 학생인권 과제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를 질적으로 보충하고 학내 면면들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Ⅱ.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개요

### 1. 설문조사 개요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관악구 지역 중·고등학교 34개교 중 34개교에서 하교 중인 재학생 149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된 1차 조사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 2차 보강조사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모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부터는 반올림하여 나타내었다.

총 응답자 1499명의 학교별 분포, 인구학적 분포와 학교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관악지역 학교별 응답자 분포

학교명	응답자(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관악중학교	82	5.5	5.5
광신고등학교	13	0.9	6.3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42	2.8	9.1
광신중학교	25	1.7	10.8
구암고등학교	26	1.7	12.5
구암중학교	52	3.5	16.0
난우중학교	68	4.5	20.5
남강고등학교	18	1.2	21.7
남강중학교	52	3.5	25.2
남서울중학교	44	2.9	28.2
당곡고등학교	26	1.7	29.9
당곡중학교	61	4.1	34.0
문영여자고등학교	46	3.1	37.0
문영여자중학교	55	3.7	40.7
미림여자고등학교	60	4.0	44.7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	46	3.1	47.8
미성중학교	59	3.9	51.7
봉림중학교	35	2.3	54.0
봉원중학교	57	3.8	57.8
삼성고등학교	36	2.4	60.2
삼성중학교	68	4.5	64.8
서울관광고등학교	40	2.7	67.4
서울미술고등학교	46	3.1	70.5
서울산업정보학교	30	2.0	72.5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24	1.6	74.1
성보고등학교	61	4.1	78.2
성보중학교	32	2.1	80.3
신관중학교	34	2.3	82.6

신림고등학교	42	2.8	85.4
신림중학교	19	1.3	86.7
영락고등학교	68	4.5	91.2
영락유헤스고등학교	9	0.6	91.8
인헌고등학교	35	2.3	94.1
인헌중학교	88	5.9	100.0
총 계	1499	100.0	

중학생 응답자의 학교 중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학교는 인헌중학교(5.9%)이며, 고등학생 응답자의 학교 중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학교는 영락고등학교(4.5%)이다. 가장 응답이 적은 학교는 영락유헤스고등학교(0.6%)와 광신고등학교(0.9%)이다.

전체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은 학제/성별/학교성별특성/설립주체(공립, 사립)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응답자의 중/고등학교 분포

학교분류	응답자 수(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중학교	831	55.4	55.4
고등학교	668	44.6	100.0
합 계	1499	100.0	

전체 응답자 가운데 중학교 재학생의 비율은 55.4%이며 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인 44.6%보다 11% 가량 높았다.

[표 4] 응답자의 재학 중인 학교의 성별특성 분포

학교분류	응답자 수(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남녀공학	1137	75.9	75.9
남고	79	5.3	81.1
여고	176	11.7	92.9
여중	55	3.7	96.5
남중	52	3.5	100.0
합계	1499	100.0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재학 중인 학교의 성별특성이 남녀공학인 경우가 7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고가 11.7%로 많았다.

[표 5] 응답자의 성별 분포

성별	응답자 수(명)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	556	37.1	37.1
여	943	62.9	100.0
합계	1499	100.0	

전체 응답자 가운데 여성 응답자 비율이 62.9%로 남성 응답자 비율 37.1%에 비해 25% 이상 높아 여성 응답자 수가 월등히 많았다.

[표 6] 응답자별 공/사립 분포

학교유형	응답자 수(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공립	862	57.5	57.5
사립	637	42.5	100.0
합계	1499	100.0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재학중인 학교의 특성이 공립학교인 경우가 57.5%로 사립학교인 경우 42.5%보다 약 15%가량 높아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응답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2. 면접조사 개요

본 조사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수집하기 위하여 관악지역 중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의 대상자의 경우 중/고등학교, 공/사립 여부, 남녀공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긍정적인 내용이건 부정적인 내용이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발언해야하는 면접조사 대상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변보호 차원에서 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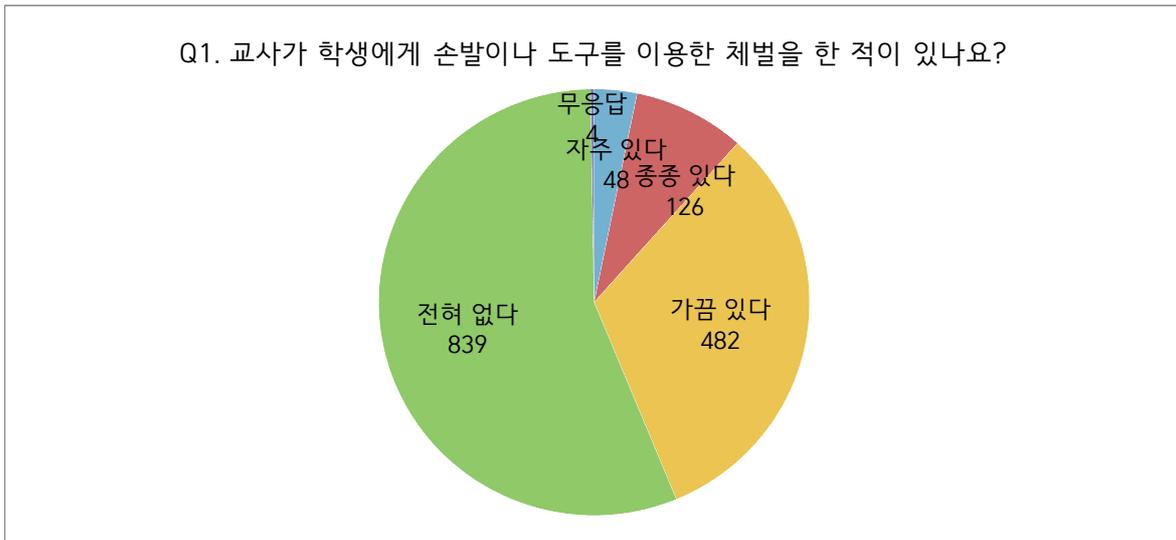
[표 7] 면접조사 대상 인적사항

번호	학교이름	조사대상자 학년	인문/전문계 여부	남녀공학 여부	공/사립 여부
1	A중학교	3학년	-	여학교	사립
2	B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	여학교	사립
3	C중학교	3학년	-	남녀공학	공립
4	D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	남녀공학	공립
5	E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	남녀공학	사립
6	F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	남녀공학	사립
7	G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남학교	사립
8	H중학교	2학년	-	남녀공학	공립

### Ⅲ. 조사결과

#### 1. 직·간접 체벌 및 폭언

##### (1) 직접 체벌



[표 8] 직접체벌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

Q1. 교사가 학생에게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한 적이 있나요?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무응답	총계
48	126	482	839	4	1499
(3.2%)	(8.4%)	(32.2%)	(56.0%)	(0.3%)	(100%)

‘교사가 학생에게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6.0%의 응답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43.8%의 응답자는 체벌을 경험하고 있었다.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직접체벌이 ‘자주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2% 존재했으며, 8.4%는 ‘종종 있다’, 32.2%는 ‘가끔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9] 직접체벌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학제 특성에 따른 응답 분석

Q1의 중고등학교별 응답분포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29 (3.5%)	86 (10.4%)	321 (38.7%)	393 (47.4%)	829 (100%)
고등학교	19 (2.9%)	40 (6.0%)	161 (24.2%)	446 (67.0%)	666 (100%)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로,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체벌이 금지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체벌 없는 학교문화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직접체

별 경험 유무를 분석해보면, 중학생의 경우 3.5%의 응답자가 직접체벌을 자주 경험했고, 10.4%의 응답자가 종종 경험했으며, 38.7%의 응답자가 가끔 경험하였다. 이는 52.6%의 과반이 넘는 중학생 응답자가 직접체벌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2.9%의 응답자가 직접체벌을 자주 경험했고, 6%의 응답자가 종종 경험했으며, 24.2%의 응답자가 가끔 경험하였다. 33.1%의 응답자가 직접체벌을 경험했다는 의미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체벌이 일어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10] 직접체벌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공/사립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

Q1의 공·사립별 응답분포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공립	20 (2.3%)	65 (7.5%)	281 (32.6%)	495 (57.5%)	861 (100%)
사립	28 (4.4%)	61 (9.6%)	201 (31.7%)	344 (54.3%)	634 (100%)

공립/사립 간의 차이는 근소한 수준이었으나 ‘자주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약 2% 더 많았으며 ‘종종 있다’ 역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의 응답률이 2% 더 많았다. 전체 긍정 답변(자주 있다+종종 있다+가끔 있다)의 측면에서 공/사립 간의 차이는 근소하나 빈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보다 높은 빈도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직접체벌과 관련한 증언들은 다음과 같다.

과학 선생님이 볼을 잡아당긴다거나 가끔씩 화가 나시면 때릴 때도 있다. 책으로 머리를 칠 때도 있는데 최근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진 않는다. 그 과학 선생님이 3학년 담임을 쪽 해 오신 분인데, 나도 많이 당해봤다. 학교에 공부방이 있는데 내가 작년에 그걸 했었다. 그 때 맞았었는데 좀 당황스러웠다. 많이 울었다. (A중학교)

1학년 때 보건쌤이 애들 나오게 해서 한 대씩 때렸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2학년 맨 앞에 나와서 문제를 푸는 수행평가 시간이 있었는데 틀릴 때마다 손바닥을 맞았었다. (C중학교)

남자 쌤이 장난 식으로 엉덩이를 때릴 때도 있다. 복도 지나가다가 가끔 ‘화장하지 마!’ 그러면서 찰싹찰싹 매 같은 걸로 친다. 도서관 책 반납 안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쌤은 단어 안 외워오거나 책 안 가져오면 손바닥 두 세대씩 때리기도 한다. 보통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때린다. 좀 심하게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다. (E고등학교)

예전과 비해 좀 나아진 것 같다. 1학년 때 신입생들 모여서 체육관에서 뭐할 때 학년부장이 애들 빨리 안 들어간다고 애들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딱 때린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이 유난히 심했던 것 같다. 요즘도 애들이 뭔가를 제대로 안하면 남자애들 목덜미를 심하게 때린다. (F고등학교)

주로 특정 교사들, 특히 남교사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2학년의 OO교사는 학생이 지각을 하거나 야자 시간에 도망갔을 경우 직접체벌을 행사한다. 2학년 체육교사는 좀 심한 케이스이다. 체벌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한다. 작년 1학년 때 수영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수영복을 안 가지고 와서 수영장 바닥에서 엎드려뺨쳐를 시킨 후 아이스하키채로 때렸던 일이 있었다. 그 학생에게 ‘장애인’ 같다고도 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는 점과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G고등학교)

작년 운동회 때 늦게 온 학생이 있었는데 교사가 그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심하게 때렸다. 문제가 되자 교사가 결국 사과를 했지만 이후 반 체육수업 때 그 학생에게 ‘그게(내가 그 때 때렸던 게) 체벌이냐. 아무리 그래봤자 난 그런 걸로 끄덕도 않는다.’ 라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G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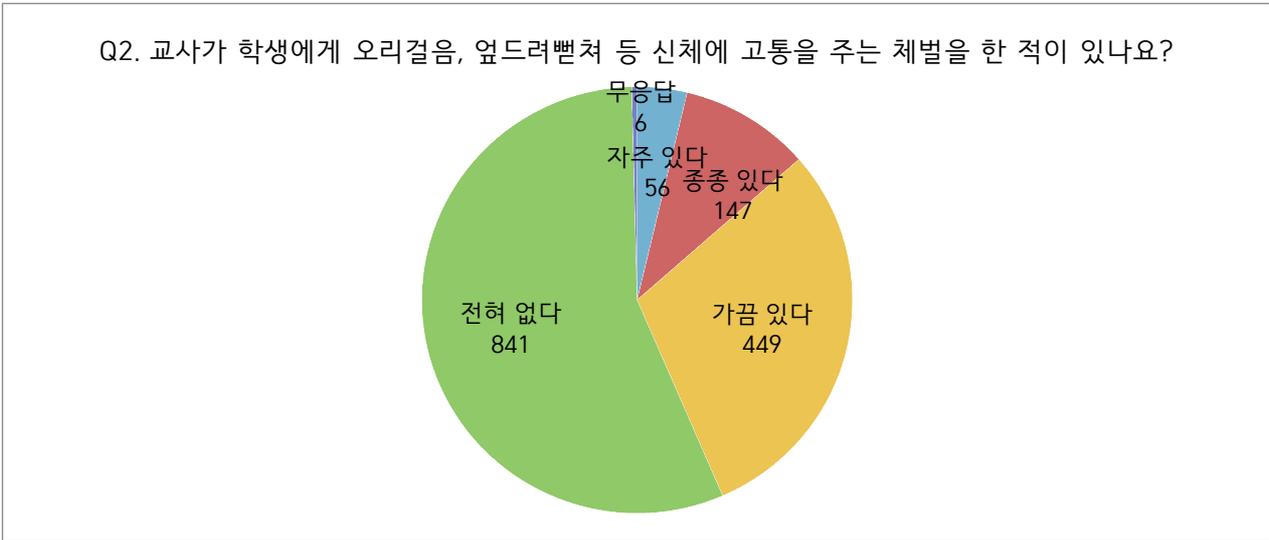
한 번은 수행평가를 보는데 학생 두 명이 커닝을 하다가 걸린 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이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해당 학생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무릎을 꿇려놓고 발로 밟았다. 보다 못한 애들이 교사에게 ‘그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G고등학교)

운동장 조희 할 때 자세가 흐트러진 학생들에게 엎드려뺨쳐를 시킨 후 발로 걷어차는 일도 가끔 일어난다. 생활지도부장은 주로 열쇠고리로 학생들의 이마를 때리는데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G고등학교)

OO교사는 남학생들의 고환을 꼬집는다거나, ‘불타는 오징어(다리를 뒤로 접게 한 후 앉히는 것)’ 라는 걸 시킨다. 1학년 때 수업시간에 친구와 떠들었다고 그걸 당했었다. (G고등학교)

면접자 중 직접체벌을 경험,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주로 특정 교사가 직접체벌을 가하나 그 교사의 체벌을 제지하는 학교의 구조와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 등 위험한 부위에 대한 체벌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A학교의 경우 책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체벌이 벌어졌으며, F학교에서는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때리거나 목덜미를 때리는 일이 있었다. E고등학교에서는 머리와 뺨을 때렸고, G고등학교에서도 머리를 때린다는 증언이 있었다. 성적으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체벌도 이루어졌는데, E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남교사가 때리는 일이 있었으며, G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의 고환을 꼬집는 체벌이 이루어졌다. 심한 폭행도 이루어졌는데, G고등학교에서는 ‘아이스하키 채’로 학생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으며,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밟는’ 체벌도 이루어졌다. C중학교에서는 성적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2) 간접 체벌



[표 11] 간접체벌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

Q2. 교사가 학생에게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서 있기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을 한 적이 있나요?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무응답	총계
56(3.7%)	147(9.8%)	449(30.0%)	841(56.1%)	6(0.4)	1499(100%)

‘교사가 학생에게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서 있기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6.1%의 응답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43.5%의 응답자는 간접체벌을 경험하고 있었다. 간접체벌이 ‘자주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7% 존재했으며, 9.8%는 ‘종종 있다’, 30.0%는 ‘가끔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2] 간접체벌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학제 특성에 따른 응답 분석

Q2의 중·고등학교별 응답분포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41(5.0%)	97(11.7%)	316(38.3%)	372(45.0%)	826(100%)
고등학교	15(2.2%)	50(7.5%)	133(19.9%)	469(70.3%)	667(100%)

전반적으로 간접체벌을 경험하는 비율은 직접체벌을 경험하는 비율과 비슷했으며, 역시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간접체벌을 경험하고 있어 간접체벌 문제 역시 근절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체벌 경험 유무를 분석해보면, 중학생의 경우 5%의 응답자가 체벌을 자주 경험했고, 11.7%의 응답자가 종종 경험했으며, 38.3%의 응답자가 가끔 경험하였다. 이는 55%의 과반이 넘는 중학생 응답자가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2.3%의 응답자가 체벌을 자주 경험했고, 7.5%의 응답자가 종종 경험했으며, 20%의 응답자가 가끔 경험하였다. 29.8%의 응답자가 체벌을 경험했다는 의미로, 간접체벌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체벌이 유의미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나이가 더 적은 중학생이 체벌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체벌 문제가 아직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표 13] 간접체벌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공/사립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

Q2의 공·사립별 응답분포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공립	35(4.1%)	81(9.5%)	286(33.4%)	455(53.1%)	857(100%)
사립	21(3.3%)	66(10.4%)	163(25.6%)	386(60.7%)	636(100%)

공/사립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 간의 격차는 비교적 큰 폭으로 나타난다. 긍정 응답(자주 있다+종종 있다+가끔 있다)에서 공립 응답자가 사립 응답자보다 약 7%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립학교에서 직접 체벌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 직접체벌의 대체수단으로서 간접체벌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유추된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간접체벌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간접체벌은 일상적으로 있다. 주로 학생이 지각을 했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킨다. 체육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지각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운동장을 돈다. (C중학교)

직접체벌은 거의 없지만 간접체벌이 많다. 주로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려뺨쳐 정도. 지각하거나 뭘 잘 못하면 하라고 한다. 아침에 지각하면 주로 엎드려뺨쳐를 하거나 수업을 아예 못 듣게 한다. 수업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실습을 못 하게 한다. 전기 배선을 하는데 잘못 나오거나 그럴 때에도 엎드려뺨쳐 한다. 전기를 배선해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거나 1번에 들어와야 하는데 2번에 들어온다거나 할 때. 주로 실습담당 선생님들이 시킨다. (D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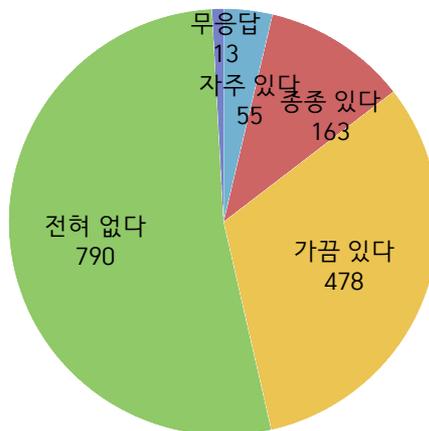
얼차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은 거의 안 시키고 남자애들 위주로 시킨다. 간접체벌은 특정 선생님들 빼면 거의 없는데 그 선생님들도 학생 성별을 좀 가려서 시킨다. 그냥 뭘 뺨한 것들 있지 않나. 엎드려뺨쳐, 토끼뺨 이런 거. 주로 남자 쌤들, 체육 쌤들이 그런다. (E고등학교)

지각을 하거나 교사 지시 불응 시 공개적으로 엎드려뺨쳐를 시키거나 손 들고 서있게 한다. 직접 겪은 적은 없다. 친구들 중 체벌이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공개적으로 체벌을 당했다는 것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지만 비교적 많이 당한 애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긴다. 개인적으로 상·벌점제 같은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구시대식의 비인권적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H중학교)

면접자 중 간접체벌을 경험,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간접체벌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 보다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중학교는 지각을 했을 때, D고등학교는 실습시 실수가 있었을 때, H중학교는 지각을 했거나 교사에게 복종하지 않았을 때 간접체벌을 학생에게 가하는 식으로 일상적인 간접체벌이 이루어졌다. E고등학교의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르게(남학생에게 더 많이) 간접체벌이 가해졌다.

### (3) 폭언

Q3. 교사가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욕설 등을 한 적이 있나요?



[표 14] 폭언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

Q3. 교사가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욕설 등을 한 적이 있나요?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무응답	총계
55(3.7%)	163(10.8%)	478(31.9%)	790(52.7%)	13(0.9%)	1499(100%)

‘교사가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욕설 등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7%의 응답자는 ‘자주 있다’, 10.8%는 ‘종종 있다’ 31.9% ‘가끔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욕설을 경험한 학생이 46.4%에 달하는 것이다.

[표 15] 폭언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학제 특성에 따른 응답 분석

Q3의 중·고등학교별 응답분포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40 (4.9%)	92 (11.1%)	276 (33.6%)	414 (50.4%)	822 (100%)
고등학교	15 (2.3%)	71 (10.7%)	202 (30.4%)	376 (56.6%)	664 (100%)

언어폭력의 경험 또한 차별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는데, 언어폭력의 경우 중학교에서와 고등학교에서의 경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중학생의 4.9%가 자주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1.1%가 종종 경험했으며, 33.6%가 가끔 경험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2.3%가 자주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0.7%가 종종 경험했으며, 30.5%가 가끔 경험했다.

[표 16] 폭언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공/사립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

Q3의 공·사립별 응답분포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공립	33 (3.9%)	92 (10.7%)	279 (32.7%)	450 (52.7%)	854 (100%)
사립	22 (3.5%)	71 (11.2%)	199 (31.5%)	340 (53.8%)	632 (100%)

응답자의 재학 중인 학교의 공/사립 여부에 따라 나눈 응답분포의 경우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므로 폭언에 대해서 공/사립 응답자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립학교에서는 긍정 응답(자주 있다+종종 있다+가끔 있다)이 47.3%로 나타났으며, 사립학교에서는 46.2%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교사에 의한 수치심을 주는 말과 폭언에 관련한 증언들은 다음과 같다.

한 여학생이 선생님이 자기한테 성추행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운 적이 있었다. 수업을 하다가 변지점프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다 벗고 하는 변지점프였다. 남녀 공동 수업인데 그 선생님이 여학생한테 ‘너도 그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해서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또 수업 도중 “강아지가 얘기를 많이 낳는데 너도 많이 낳아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나는 그런 일로 수치심을 느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건 당하는 사람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로 남자애들이 그 여학생을 ‘강아지’라고 놀렸다. (F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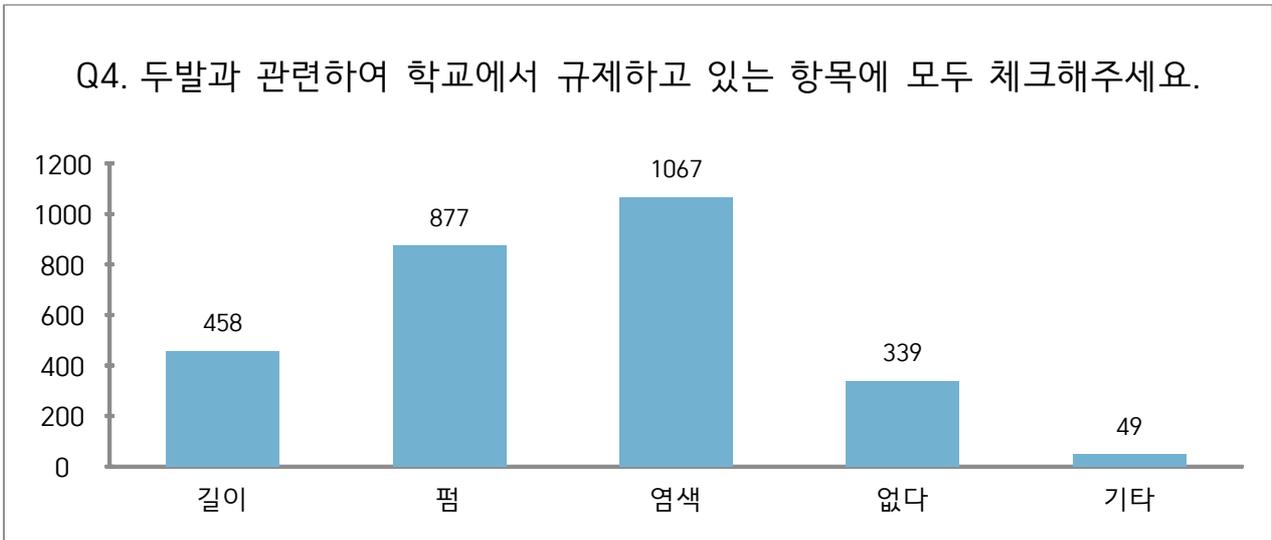
한 선생님께선 수업하다 본인 심기가 불편하면 갑자기 ‘씨발’ 을 남발한다.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애들이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특정 애를 지목해서 ‘너 자살 안 했냐?’ 라고 했던 적도 있다. 또 다른 반에선 특정 애를 지목해서 시험 성적이 낮다며 면박을 주고 본인 동의 없이 점수를 모두에게 공개했던 일도 있다. 그 학생이 이에 기분이 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짜가지 없다’ 고 했다. (F고등학교)

수치심을 주는 말을 교사가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몇몇 교사들은 성적인 농담들을 정말 많이 한다. ‘아다’같은 말 등이다. 입학하고 처음 그런 말들을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난다. 어떻게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지 정말 놀랐었다. (G고등학교)

면접자 중 수치심을 주는 말, 폭언을 경험,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수치심을 주는 말은 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었으며, 폭언의 경우 욕설 사용이었다. F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고, 그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들로부터 2차적인 성희롱을 당하도록 만들었다. G고등학교는 남학교인데,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 성적인 농담을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F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교사가 욕설을 사용하고, ‘너 자살 안 했냐’ 는 강도 높은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 두발 및 복장1)

### (1) 두발 규제



[표 17] 두발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복수응답)

Q4. 두발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복수응답) <sup>2)</sup>						
길이	펴	염색	없다	기타	무응답	총 응답자 <sup>3)</sup>
458 (31.0%)	877 (59.4%)	1067 (72.3%)	339 (23.0%)	49 (3.3%)	23	1,476 (100%)

1) 두발 및 복장 규제 대한 항목의 경우 설문조사 응답이 복수응답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각 특성별 교차분석의 어려움이 있어 전체 응답빈도 분석 외의 학제, 설립주체(공,사립 여부)에 따른 비교분석은 제외하였다.

2) 각각 응답의 빈도에 대한 퍼센트는 ‘응답빈도/총 응답자 수’로 도출하였다.

‘두발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두발규제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3%에 불과했으며, 이는 77%의 응답자가 두발규제를 경험했다는 의미이다. 전체 응답자 중 31%는 길이 규제마저 경험하였으며, 59.4%는 펌(퍼머) 규제를, 72.3%는 염색 규제를 경험하였다(중복 응답 가능). 그 외 기타 두발규제 항목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3.3%였다(기타 항목 예: 올림머리 등).

서울학생인권조례 적용지역인 서울 관악구의 중고등학교들에서조차 77%에 달하는 학생들이 두발규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을 규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 학생인권조례와 두발자유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두발규제에 대한 증언들은 다음과 같다.

머리를 풀고 다니려면 귀 밑 7cm가 넘으면 안 되고, 묶고 다니려면 귀 밑 25cm까지가 규정이다. 파마나 염색은 아예 안 된다. 규정을 어기면 가끔씩 선생님들이 가위로 잘라준다. 아니면 별점을 계속 부여한다거나. 1주일에 한 번씩 머리길이를 재는 등의 두발 검사를 한다. 그리고 앞머리를 고데기로 말고 와도 안 된다. (A중학교)

우리는 선도부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파마나 염색을 한 학생이 있으면 바로 학번 이름 적고 별점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별점 주고 내일까지 시정해서 확인 받으라고 하니깐 애들도 빼기질 못하고 다시 (펌을)풀어온다. (B고등학교)

여자는 머리 길이가 명찰을 넘으면 안 되고, 남자는 셔츠 뒷깃에 머리가 닿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펌이나 염색은 다 안 되고. 펌이나 염색은 풀어 올 때까지 꼬박꼬박 별점을 받는다. (E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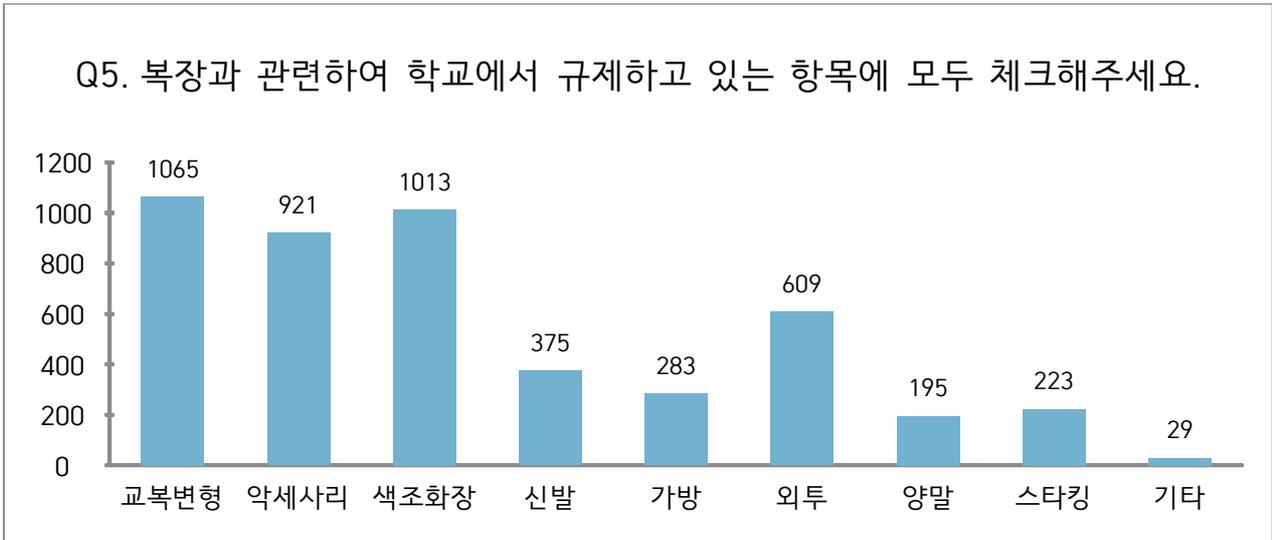
길이, 펌, 염색 다 규제가 있다. 길이는 여자의 경우 귀 밑 30cm, 남자는 두블럭 안 되고, 전체적으로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면 안 된다. 파마 같은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그냥 100% 걸린다. 염색도 마찬가지로이다. 위와 같은 것들을 위반하면 별점 2점을 받고 고쳐올 때까지 계속 별점을 받는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아침에 청소를 하게 된다. (F고등학교)

A중학교와 E고등학교, F고등학교는 두발의 길이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B고등학교는 같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선도부’가 다른 학생들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중학교는 두발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강제 이발까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네 학교 모두 별점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의 두발 규정 미준수를 처벌하는데, 한번 별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발을 규정에 맞출 때까지 계속 별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3) 무응답자를 제외한 총 응답자 수를 말한다.

(2) 복장 규제



[표 18] 복장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복수응답)

Q5. 복장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복수응답) <sup>4)</sup>						
교복변형	악세서리	색조화장	신발	가방	무응답	총 응답자 수
1065 (77.2%)	921 (66.8%)	1013 (73.5%)	375 (27.2%)	283 (20.5%)	120	1,379 (100%)
외투	양말	스타킹	기타			
609 (44.2%)	195 (14.1%)	223 (16.2%)	29 (2.1%)			

‘복장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7.2%는 ‘교복 변형’에 대하여, 73.5%는 ‘색조화장’에 대하여, 66.8%는 ‘악세서리’에 대하여 규제를 당한다고 응답해 학생이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 많은 학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한 목적의 ‘외투’를 규제당한 경우가 44.2%에 달해 복장 규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었다. 그 외에 ‘신발’을 규제 당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7.2%, ‘가방’ 20.5%, ‘스타킹’ 16.2%, ‘양말’ 14.1%, ‘기타’ 항목 2.1%였다. 기타 항목의 경우 ‘속옷’, ‘손톱 길이’, ‘뺨지 착용 필수’ 등이 있었다.

두발과 마찬가지로 복장에서도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규제할 수 없음을 명시한 내용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존재함에도 학교 현장의 상황은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복장 규제는 소지품 검사, 압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복장 및 용의규제에 대한 증언들은 다음과 같다.

치마는 무릎까지가 규정이고 좀 더 올라오면 교복을 바꿔준다거나 단을 내려오라고 한다. 졸업생들이 기부하듯이 교복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걸리면 더 긴 걸로 바꿔주는 것이다. 친구들이 치마 때 문에 많이 걸리는데 솔직히 짜증나는 일이다. 애들이 그 사이에 키가 컸을 수도 있고 본인은 치마를 줄이지도 접지도 않았는데 걸리니까. 걸리면 다들 어이 없어한다.

셔츠 안에 다른 옷을 입는 것도 안 된다. 스타킹 색은 커피색 안 되고. 양말은 흰색, 회색, 검정만 가

4) 각각 응답의 빈도에 대한 퍼센트는 ‘응답빈도/총 응답자 수’로 도출하였다.

능하다. 교복 안에 나시를 입어야 하는데 색깔 나시는 입으면 안 된다. 검정색이나 이런 건 다 비치니까 못 입게 한다. 색깔 나시 때문에 걸린 적이 있는데 이게 셔츠 위로 딱 보이니까 바로 걸린다. 화장은 일단 다 안 된다. 선크림이라도 많이 하얘지면 잡고 틴트도 아예 안 된다. 신발은 키높이나 컨버스 같은 운동화는 안 되고 가방은 백팩만 괜찮고 크로스백 등은 안 된다. (A중학교)

치마는 무릎의 반은 덮어야 규정에 안 걸리고, 허리도 통이 너무 작아서 딱 붙고 그러면 걸린다. 또 (치마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거의 종아리 반을 덮는 치마를 입는 애들이 있다. 교복을 살 때 길이가 긴 치마를 사서 그런 것 같다. 그럴 땐 너무 길다고 예쁘게 좀 줄여오라고 한다.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경우엔 너무 밝은 색, 튀는 색은 안 되고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으로 해야 한다. 양말은 또 계절별로 정해져있다. 춘추복이랑 하복 입을 땐 흰색 양말을 신고, 동복 입을 때는 검은 스타킹에 검은 양말 신어야 한다. 머리끈도 검은색이어야 하고, 반지나 팔찌, 목걸이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시계는 괜찮다. 하복 안에 무조건 나시를 입어야 하는데 나시도 끈이 하나로 되어있는 망고 나시는 안 되고 색깔도 흰색만 입어야 한다.

화장도 절대 안 된다. 색조 없는 선크림이나 립밤같은 건 괜찮는데 색조 들어간 화장품은 안 된다. 학교에서 항상 머리를 묶고 있어야 하는데 검은색 머리끈만 가능한데 정말 너무 칙칙하다. 비둘기 같다. 그런 건 진짜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으니까. 머리끈도 일회용 고무머리끈은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끈 사러 멀리 나가야 하는데 힘들다. 그냥 편의점에서 바로 일회용 사고 싶은데. (B고등학교)

우리 학교 화장 규제가 좀 많이 강하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어떨 땐 틴트나 비비만 발라도 잡지만, 어떨 땐 일일이 다 못 잡으니까 안 잡는다. 요즘에는 1학년 학생들도 진한 화장은 아니지만 틴트나 비비 정도는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맨날 잡는 애들만 잡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본보기로 그런다는 말이 있다. 특정 학생만 계속 주시한다. 예를 들어 치마를 자주 줄이고 다니는 학생이면 화장 관련해서도 그 학생을 주시하는 거다. (C중학교)

겨울에 교실 밖에서 담요 두르고 있으면 안 되고, 패딩 같은 외투 입을 땐 반드시 마이 위에 입어야 한다. 불편하다고 마이 안 입고 패딩 입으면 바로 뺏아서 1년 뒤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치마는 무릎 뼈에 닿아야 한다. 평소에는 치마가 무릎 위 길이어도 그냥 뺨두다가 단속하는 시기엔 잡는다. 치마나 바지 통 줄이는 건 평소에도 걸린다. 여자애들은 퍼지는 치마보다는 예쁘게 좀 줄여서 입고 싶어 하는데 그건 바로 걸린다. (E고등학교)

화장 관련해서는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이다. 조금만 뿔 발랐다 싶으면 걸린다. 바로 화장실 가서 씻고 오라고 하거나 물티슈를 준다. 본인이 직접 애들 얼굴을 물티슈로 문지르는 썸들도 있다. (E고등학교)

2학년 때 형형색색의 파카를 입지 말라고 애들 파카 몇 개를 걷었었다. 애들 이름 적힌 종이를 파카에 스테이플러로 찍어놔서 옷이 손상되었다. 본인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랬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장이 빨간 색을 싫어한다는 이유(빨간 색이 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로 그런 거였다. 특히 빨간 색 파카를 많이 가져갔다. 다시 돌려는 줬다. 학부모들 항의가 있어서 얼마 후 폐지했으나 빨간 색은 얼마간 계속 잡았다. (F고등학교)

남자 애들 바지 줄이는 것도 잡지만 여자애들 치마 줄이는 건 정말 많이 잡는다. 수시로 잡는다. 복장 검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은 있지만(무릎 위 3cm) 생지부장이 무차별적으로 잡는 경우도 많다. 딱 봐도 안 줄인 것 같아 보이는데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무조건 늘려오라고 한다. 치마를 걷어가기도 한다. 여름이 되면 애들이 학교에서 체육복을 입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엄청 잡는다. 체육 수업 외에 기타 다른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입고 있으면 잡히는 거다. 수업 시

간임에도 갑자기 쳐들어와서 별점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다. 체육복 입고 있으면 급식비를 냈는데도 밥을 안 준다. (F고등학교)

면접자 중 대부분이 학교에서 상세하게 규정된 복장용의 규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위의 모든 학교에서 교복을 변형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금지했고, 여학생의 치마가 무릎 등 어느 선까지 오지 않으면 처벌했다. A중학교와 B고등학교에서는 교복 안에 입는 속옷(나시) 색깔을 규제하고 있으며, A중학교와 B고등학교는 양말과 스타킹 색깔까지, B고등학교는 머리끈의 색깔까지 규제함으로써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학교가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장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A중학교와 B고등학교, C중학교, E고등학교에서 화장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E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물티슈로 학생의 얼굴을 문질러 지운다는 증언도 나왔다. 방한을 위한 외투와 담요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E고등학교에서는 교실 바깥에서 담요를 두르는 것을 금지하고, 마의 위에 외투를 입지 않으면 외투를 압수하기까지 했다. F고등학교에서는 외투 색깔을 규제했다.

C중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공평하게 규제를 하지 않고 몇몇 학생들만을 주시해서 복장 규제를 한다는 증언이 있었고, F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복장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세한 복장 규제를 통한 통제와 그로 인해 이어지는 압수 및 단속 때문에 벌어지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강제학습

강제학습은 0교시,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수업 등의 형태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추가 수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강제성은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와 관계없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직접적인 강제 방식'과 학생의 의사를 묻지만 학생이 거부의를 밝히더라도 반영되지 않거나 면담을 진행하여 거부의를 철저히 하는 등의 방식의 '간접적인 강제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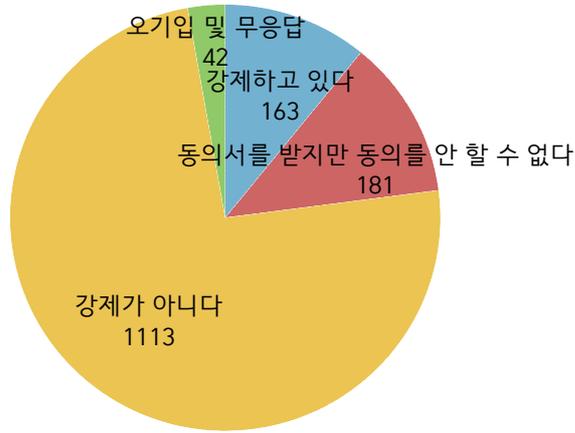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인 교과시간 외의 시간에 보충학습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충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실상 정규수업과 다르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어 학생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학생들의 수면권이 침해되어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 강제학습의 여부

[표 19] 강제학습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

Q6. 정규수업 외의 학습/수업(ex.야자, 보충수업, 0교시 등)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제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지만 동의를 안 할 수 없다	강제가 아니다	오기입 및 무응답	총계
163(10.9%)	181(12.1%)	1113(74.2%)	42(2.8%)	1499(100%)

Q6. 정규수업 외의 학습/수업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야자 등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추가 학습을 강제적인 방식으로 경험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10.9%가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12.1%가 동의서를 받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반해 강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4.2%로 대다수의 학교들이 강제로 보충학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3%의 응답자가 밝혔듯이 몇몇 학교들에서는 아직도 직/간접적으로 강제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0] 강제학습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학제 특성에 따른 응답 분석

Q6의 중·고등학교별 응답분포				
	강제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지만 동의를 안 할 수 없다	강제가 아니다	총계
중학교	61(7.7%)	48(6.0%)	686(86.3%)	795(100%)
고등학교	102(15.4%)	133(20.1%)	427(64.5%)	662(100%)

또한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의 강제학습을 받는다는 긍정적 답변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이는 중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등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1] 강제학습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공/사립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

Q6의 공·사립별 응답분포				
	강제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지만 동의를 안 할 수 없다.	강제가 아니다	총계
공립	51(6.1%)	43(5.2%)	738(88.7%)	832(100%)
사립	112(17.9%)	138(22.1%)	375(60.0%)	625(100%)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의 강제학습을 받는다는 응답(강제+동의를 안 할 수 없다)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에 비해 약 28.7%정도 높았다.<sup>5)</sup>

5) 설문 문항 중 Q7은 강제학습의 종류를 묻는 질문이었으나 이 문항의 경우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학습과 별도로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보충학습에 대해 학생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수의 학교에서 보충학습을 강제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임이 분명하다. 허나 여전히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제로 보충학습을 진행한다고 답변했다는 점에서 각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보충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2) 강제학습의 형태

강제학습에 대한 앞선 설명과 같이 강제학습은 반드시 특정 교과를 수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강제학습에 대한 증언들이다.

*1교시 수업 전에 하는 것도 있다. 우리는 8시 10분까지 등교하는데 40분까지가 독서시간이다. 그냥 읽고 싶은 책 읽는 시간이다. 학교에서 아침 독서시간은 절대 못 뺀다고 하더라. 그게(독서시간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가끔씩 8시 반 등교를 하는데, 그 땀 진짜 너무 행복하다. 경기도에서 9시 등교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학교도 8시 반 등교로 좀 늦췄으면 좋겠다. (A중학교)*

A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일명 0교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0교시 수업에 경우 정규 교과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나, 대부분 일종의 자습시간처럼 활용된다. 0교시 수업은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보충학습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등교시간을 정규수업시간보다 앞당기게 되는데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위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9시 등교 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이른 등교시간이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식사시간을 방해하며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자(야간자율학습)와 보충수업이 강제이다. 야자는 6시 50분부터 10시까지 한다. 7교시가 마지막 정규수업시간이고, 8교시는 자습시간(야자와는 별개로 진행하는 자습시간)이다. 8교시까지 끝난 후에 야자 시작. 우리 받은 야자 안 하면 벌금 낸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합쳐서 야자를 총 78시간 해야 하고, 그 중에 방학 때 하는 야자를 40시간 채워야 한다. 학원 안 다니면 야자 필수다. 과외나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그걸 진짜 다닌다는 확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그럼 야자 빼준다. 하지만 ‘너네가 학원을 아무리 다녀도 시간이 좀 남을테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야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개네들도 조금이라도 하게 한다. 그런 거(학원 등) 아예 안 다니는 애들은 무조건 (야자)해야 하고. 썩마다 다르다. 야자 안 하면 부모님한테 전화 간다. (E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줄여서 야자 역시 대표적인 강제보충학습의 한 형태이다. 자율학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야자는 오랜 강제보충학습의 형태였다. 모든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이후 오후 9시 ~ 오후 11시까지 학교에서 자습하도록 하는 보충학습으로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방해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받아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이 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허나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학생들이 이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0교시 수업처럼 더 이상 제도로서 강제되지 않는 않지만 야자를 하지 않는 학생과 면담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담을 가하여 사실상 수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그렇다.

*방과 후 수업, 야자, 0교시가 있다. 고3은 전원 7시 3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 8시 30분까지 아침 자습을 하고 8시 40분부터 정규 수업을 한다. 방과 후 수업은 완전 강제다. 방과 후 수업을 들으면 생기부(생활기록부)에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라는 의도는 알겠으나 본인이 원하는 수업이 다 찼을 경우엔 다른 수업이라도 억지로 들으라고 굉장히 압박을 준다. 학년부장이 누구냐에 따*

라 다르다.

어느 날 갑자기 반에 들어와서 ‘모의고사 3등급 이하인 애들 일어나’ 라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구별해서 방과 후 수업 들으라고 엄청 압박을 줬던 적이 있다. 어떤 반에선 한 학생이 ‘제 돈 주고 들어야 하는데 굳이 제가 싫어하는 걸 들어야 하나. 나는 예체능이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돈 내고 안 들으면 되잖아.’ 라고 답했다고 한다. 1학년 때는 방과 후 안 듣는 애들은 교사에게 끌려가기도 했다. 야자 같은 경우도 안 하면 압박을 많이 한다. (F고등학교)

면접조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강제하거나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과후 수업의 경우 다양한 내용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학생이 직접 수강료를 부담하고 정규수업시간 이후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이야기를 볼 때 이러한 관행은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적지 않은 대학 수시전형에 대비하기 위함이 그 이유로 보인다. 방과후 학교를 강제 혹은 강권하는 경우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허나 학생들의 기호와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수요할 수 있는 교육의 폭을 넓히는 방과후 학교의 목적을 생각해볼 때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방과후 학교의 수강이력은 대학입시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 또한 아니다. 교육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나 의미가 상실되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관행은 0교시 수업이나 야자와 같은 강제적인 보충학습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의 차원을 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 4. 소지품 검사 및 압수

##### (1) 소지품 검사



[표 22] 소지품 검사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

Q8.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한 적이 있나요?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오기입 및 무응답	총계
34(2.3%)	66(4.4%)	310(20.7%)	1070(71.4%)	19(1.2%)	1499(100%)

학교에서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71.4%의 학생들이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관악지역의 대다수 학생들이 부당한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는 고무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자주있다+종종있다+가끔있다)이 27.4%로 여전히 일부 학교들에서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 소지품 검사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학제 특성에 따른 응답 분석

Q8의 중·고등학교별 응답분포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19(2.3%)	48(5.9%)	204(24.9%)	547(66.9%)	818(100%)
고등학교	15(2.3%)	18(2.7%)	106(16.0%)	523(79.0%)	662(100%)

중고등학생별 응답분포는 비교적 큰 폭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보다 ‘있다’는 응답(자주있다+종종있다+가끔있다)이 약 12.1%만큼 높았다. 따라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이 그리고 자주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소지품 검사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공·사립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

Q8의 공·사립별 응답분포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공립	14(1.6%)	31(3.6%)	164(19.3%)	642(75.5%)	851(100%)
사립	20(3.2%)	35(5.6%)	146(23.2%)	428(68.0%)	629(100%)

공사립학교 응답자 간의 차이도 컸다.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에 비해 ‘있다(자주있다+종종있다+가끔있다)’는 응답이 약 7.5% 높았다. 각 빈도에 있어서도 사립학교 응답자의 빈도가 유의미한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더욱 자주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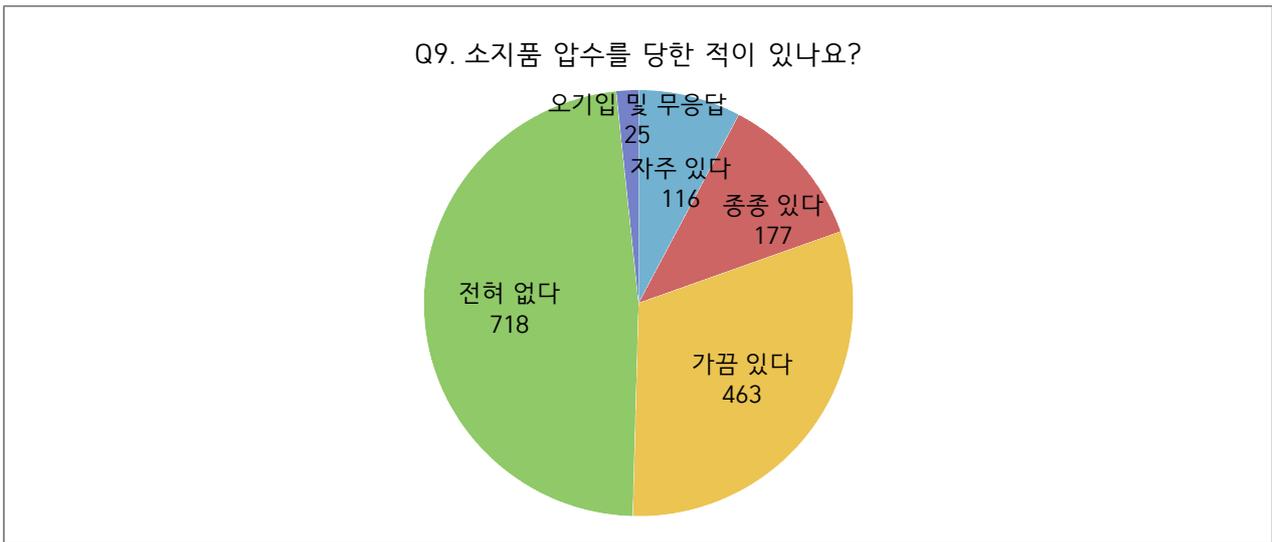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소지품검사는 주로 제보나 의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제출해야하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거나 혹은 어떠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해당 학생을 특정하거나 해당 학생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다음은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소지품 검사와 관련한 증언들이다.

*핸드폰을 누가 안 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금속 탐지기를 들고 그 반을 기습해서 검사를 하기도 한다. (A중학교)*

*어떤 애가 재 담배 가지고 있다고 신고해서 가방 열어보라고 했던 일이 있었다. 소지품 검사는 날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 애들 중에 소지품 없어진 애가 있다 싶으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반은 저번에 어떤 애가 뭐 잃어버려서 애들 사물함 다 뒤지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확인했던 적이 있다. 소지품 검사하는데 따로 동의 절차가 있진 않다. 남자 반에서는 애들이 입고 있는 교복 바지 실루엣이 뭔가 이상하다거나 하면, 예를 들어 주머니에 담배 있는 것 같으면 꺼내보라고 한다. (E고등학교)*

그러나 현행 법률상 특정인의 소지품을 동의 없이 검사하거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를 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에 영장 등을 반드시 청구해야하는 특수한 행위이기도 하다.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경우에도 초기에 제시한 목적에 맞추어 특정하여 행해져야하고 불분명한 목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향해 행해질 수는 없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철학과 이를 담은 법률의 의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E고등학교의 사례처럼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광범위한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A중학교나 타 학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2) 소지품 압수



[표 25] 소지품 압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오기입 및 무응답	총계
116(7.7%)	177(11.8%)	463(30.9%)	718(47.9%)	25(1.7%)	1499(100%)

소지품을 압수당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47.9%의 학생들이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50.4%의 학생들(자주있다+종종있다+가끔있다)이 학교에서 소지품을 압수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관악구의 학교 다수가 학생들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소지품 압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학제 특성에 따른 응답 분석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중학교	90(11.1%)	96(11.8%)	281(34.6%)	345(42.5%)	812(100%)
고등학교	26(3.9%)	81(12.2%)	182(27.5%)	373(56.3%)	662(100%)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응답과 비슷하게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의 '있다(자주있다+종종있다+가끔있다)'

는 응답이 약 13.8% 높았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소지품 검사 및 압수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소지품 압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공/사립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

Q9의 공·사립별 응답분포					
	자주 있다	종종 있다	가끔 있다	전혀 없다	총계
공립	69(8.2%)	83(9.8%)	257(30.4%)	436(51.6%)	845(100%)
사립	47(7.5%)	94(14.9%)	206(32.8%)	282(44.8%)	629(100%)

공사립학교에 따른 차이 또한 소지품 검사 여부와 압수 여부의 응답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빈도의 경우 ‘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공립의 경우가 사립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립학교 재학생이 소지품을 압수하는 경험하는 것이 공립학교 재학생보다 높았다.

이렇게 해서 압수하게 된 물품을 제대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압수한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고가품의 경우 압수 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많지 않으나 소모품, 소액 물품, 장신구 등과 같은 물품은 압수 후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소지품 압수와 관련한 증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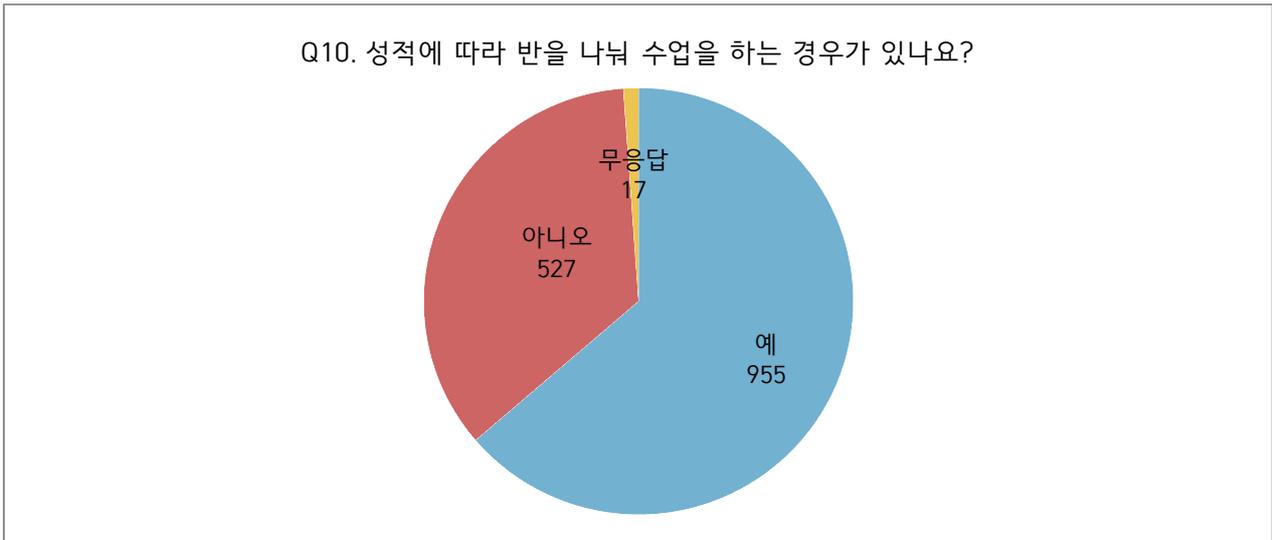
*팔찌나 목걸이는 모르겠는데 귀걸이는 하고 있다가 걸리면 생지부에서 바로 귀걸이 압수하고 부모님 호출하겠다고 한다. 만약 귀걸이를 걸렀으면 귀걸이를 반납할지, 부모한테 연락할지 선택하게 한다. 귀걸이나 화장품은 압수하면 거의 돌려주지 않는다. 티트 같은 화장품도 아예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C중학교)*

*수업 중에 폰 쓰다가 걸리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간 압수이다. 졸업 할 때까지 안 돌려줬다는 전설의 썸도 있다. (E고등학교)*

*팔찌, 귀걸이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나는 보이지도 않는 투명귀걸이 했다가 뺏겼다. 걸리면 바로 뺏기는데 절대 안 돌려준다. 화장품이랑 장신구는 100% 못 돌려받는다. 고데기 같은 경우엔 내가 저번에 책상서랍에 넣어놨는데 선생님이 보고 그냥 꺼내갔던 적이 있었다. 완전 억울하다. 쓰다가 뺏긴 것도 아니고. 그 뺏긴 고데기는 졸업할 때 돌려준다고 해서 지금 1년째 못 받고 있다. 언젠간 돌려받겠지 싶다. (E고등학교)*

## 5. 우열반 및 성적에 따른 차별

### (1) 성적에 따른 분반



[표 28] 성적에 따른 분반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

Q10.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눠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아니오	오기입 및 무응답	총계
955(63.7%)	527(35.2%)	17(1.1%)	1499(100%)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업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63.7%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수준별 수업과 교과교실제의 도입 이후 특정 교과에 대한 학생의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9] 성적에 따른 분반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학제 특성에 따른 응답 분석

Q10의 중·고등학교별 응답분포			
	예	아니오	총계
중학교	579(70.5%)	242(29.5%)	821(100%)
고등학교	376(56.9%)	285(43.1%)	66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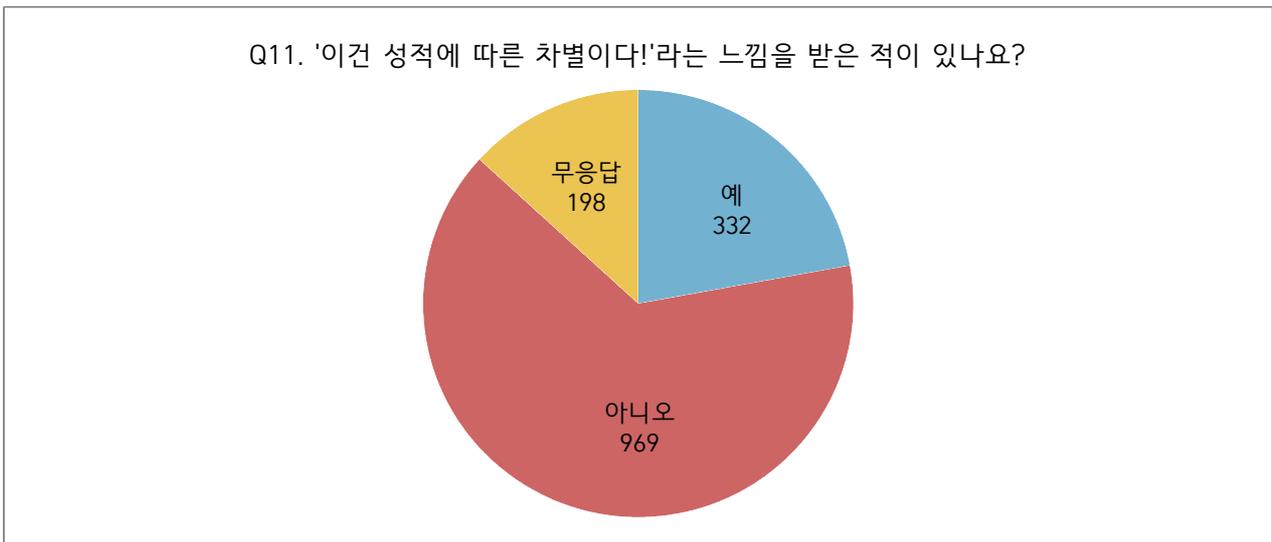
성적에 따른 분반은 중학교에서 70.5%, 고등학교에서 57%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 성적에 따른 분반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0] 성적에 따른 분반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공/사립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

Q10의 공·사립별 응답분포			
	예	아니오	총계
공립	539(63.2%)	314(36.8%)	853(100%)
사립	416(66.1%)	213(33.9%)	629(100%)

공사립 간의 격차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성적에 따른 분반을 시행한다는 응답이 사립 응답자가 공립 응답자보다 약 3%정도 높았다.

(2) 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험



[표 31] 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 응답 결과

Q11. '이건 성적에 따른 차별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오기입 및 무응답	총계
332(22.1%)	969(64.6%)	198(13.3%)	1499(100%)

무응답 비율이 10%가 넘는 터라 본 응답에 대한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선 전제한다. 64.6%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성적에 따른 차별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경험하였다는 학생이 22.1%이며 차별 사례를 적어달라는 칸에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주관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작성한 구체적인 주관식 답변 중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성적이 높은 학생에 대한 일상적인 우대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이었다.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수업진도를 물어 보실 때 내가 여기까지 나갔다고 말할 때는 듣지 않는다”거나 “성적을 근거로 한 모욕”을 줬던가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면접조사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성적에 따른 차별에 대한 증언들이다.

성적 등으로 차별하는 선생님이 가끔 있다. 좀 그런 인식들 있지 않나. ‘공부를 잘 하는 애는 인성도 엄청 착할 것이고 모든 걸 잘 할 것이다.’ 이런거. 반면에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너한테 이런 거 시키면 잘 못할 게 뻔하다.’ 뭐 이런 편견들 있지 않나. 그런 편견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 하려고 했는데 너는 이런 거 못 할 것 같다고 그랬던 선생님들이 있었다. 그 때 좀 상처가 컸었다. 내가 공부를 못 해도 다른 것들에 재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인성까지 성적으로 판단을 하니깐 기분이 나빴다.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굳이 옆에 성적 좋은 애한테 시키더라. 정말 놀랐다. (A중학교)

수준별 수업 C반 애들한테 ‘너네는 평생 C반일 거다.’라고 말했던 선생님이 있었다. (E고등학교)

진학(진로)설계나 시험평가에 대해서도 차별을 느꼈다는 주장도 있었다. “(수행평가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애들한테는 간간하게 점수를 준다”는 것이나 “학교에서 주최하는 설명회 등의 행사들을 참여할 때 성적이 우선시 된다.”는 등 진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성적에 따라 차등하여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평가, 수상경력 등을 더욱 챙겨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에서 지원공고가 들어오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먼저 지원을 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회사 측에서 4명을 추천 해달라고 하면 꼭 지원 하고 싶어 하는 애들 보다는 성적 높은 학생을 먼저 추천한다. 우리가 아직 학생이고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니까 성실성을 증명할만한 게 성적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지원을 못 한 적이 있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다. 근데 그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 했던 애들이 많았었다. 그 당시 취업한 애들이 많이 없어서 경쟁률부터 췌고 그래서 선생님이 성적순으로 잘랐다. 내가 또 성적이 낮은 편이어서 거길 지원하지 못했다. (B고등학교)

공부 잘 하는 애들한테 나중에 자소서 쓸 때 편하라고 모범상 몰아주고 그런 게 있다. 2학년 때, 1년 내내 봉사 완전 열심히 하던 애가 있었는데 개한테 봉사상을 준 게 아니라 공부 잘 하는 다른 애한테 줬던 일이 있었다. 당시 논란 엄청 많았었다. 상 받는 애들도 ‘내가 왜 이 상을 받지?’ 이러면서 어리둥절 하는 정도. 근데 그런 케이스가 꽤 많다. (E고등학교)

학생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직책에 따른 성적 차별을 둔 경우도 있었다. "학생회 출마 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하거나 “성적 높은 학생은 학생회 선출시 교사가 우대”하는 등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에 개입하거나 자치성을 훼손하는 조건을 규정으로 마련한 곳도 있었다.

고3 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담임과) 상담을 주로 하고 잘하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방치된다. 담임과 이야기할 기회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 학내 회장선거 출마에도 제한이 있다. 1,2학년 때 연속으로 회장을 한 애들한테만 3학년 때 회장 출마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암묵적으로 애들 사이에서도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챙겨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F고등학교)

위 사례들을 미루어볼 때 성적에 따른 차별이 관악구 내 학교들에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차별하거나 분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치권을 제한하는 상황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2] 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학제 특성에 따른 응답 분석

Q11의 중·고등학교별 응답분포			
	예	아니오	총계
중학교	187(25.5%)	545(74.5%)	732(100%)
고등학교	145(25.5%)	424(74.5%)	569(100%)

[표 33] 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공/사립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

Q11의 공·사립별 응답분포			
	예	아니오	총계
공립	178(25.5%)	519(74.5%)	697(100%)
사립	154(25.5%)	450(74.5%)	604(100%)

중/고등학교의 경우 둘 사이의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공·사립 별 분석 또한 마찬가지였다.

## 6. 그 외 인권침해

설문조사에서는 질문하지 않았지만 면접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1) 종교 강요

*기독교 학교라 격주로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인성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이다. 예배를 주관하고 찬양 울동 등을 연습하는 동아리가 따로 있는데 나 또한 개신교인이라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배가 수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수업은 없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전도사님이 따로 계시고 전교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한다. (A중학교)*

*예배시간이 목요일 1교시에 있다.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다. 학생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무교인 애들도 있고 골고루 있다. 하지만 예배시간과 종교시간이 아예 학교 수업으로 편성된 거라서 종교가 다르다거나 무교라고 빠질 수는 없다. 종교시간에 수업하는 교과서는 그냥 여러 종교의 차이 등을 배우는데 보통 성경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그런 시간이다. 수업 시간에 하느님 열심히 믿으면 다 해결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낼 때가 많다. 그리고 힘들어서 상담 받으러 가는 애들 있지 않나. 나도 상담실 한 번 가봤는데 상담 결론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밝아질 것이다' 가 결론이다. (E고등학교)*

면접자 중 종교재단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두 면접자는 모두 기독교(개신교) 학교에 다녔는데, 두 학교 모두에서 종교수업 혹은 예배의식을 학교차원에서 진행하고 종교가 다를지라도 참석하도록 강요해왔다. A중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의 하나로 예배를 진행하는데, 예배를 수업에 포함하면서도 대체수업의 선택지를 열어두지 않았다. E고등학교에서는 예배시간과 종교수업시간을 운영하는데, 종교수업에서는 기독교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종교가 다르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예배와 종교수업에 빠질 수 없도록 한다. E고등학교에서는 예배, 종교수업 외 시간에도 종교적인 색채가 떨어지지 않는데, 학교 상담실에서조

차 학생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답을 내놓는 실정이다. 모든 학생에게 특정 종교 수업과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 (2) 교사의 차별

*애들을 막 가려서 대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애들과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을 가린다. 예쁘게 생긴 애들을 좋아하는 남자선생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선생님이 관심을 주는 학생들과 진짜 관심 안 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관심 주는 애들 중에는 예쁜 애들이 꼭 한 명씩은 있다. (A중학교)*

A중학교에 다니는 면접자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교사의 학생 차별을 경험한다고 증언했다. 면접자가 제시한 차별의 기준은 ‘외모’가 포함되었는데, 남교사들이 ‘예쁜’ 학생들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기준을 알 수 없지만 교사마다 편애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편애가 의식될 정도로 심하다고 증언했다.

## (3) 학내 참여 제한

*징계를 받으면 체육대회 같은 학교행사에 참가를 못한다. 선거도 별점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C중학교)*

C중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학교 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별점을 일정 이상 넘게 받은 학생은 학생회 피선거권도 박탈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리어 학교 행사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별점이 일정 이상 넘어갔다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저버린 처사이다.

## (4) 연애 규제

*우리는 남녀가 손잡는 것도 안 된다. 저번에 어떤 애가 남친이랑 학교 계단에서 껴안고 있다가 남친이 정학 받았다. 제일 별점 높은 게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 풍기문란 항목에 들어가는데 그게 별점 10점에서 15점정도 된다. 좀 썩다.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다 보수적이다. (E고등학교)*

E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간 연애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가 손을 잡는 것도 안 되고, 포옹을 하는 경우 정학까지 받는 중징계 사안이 된다.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가장 높은 별점을 받는다. 이와 같은 학생 간 연애에 대한 규제와 탄압은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이며, 학생의 인간관계를 학교가 통제하는 일이므로 문제적이다.

## (5) 급식

*급식비를 많이 내는 편인데 너무 질이 떨어진다. 닭 먹다가 비닐이 나온 적도 있고 머리카락 같은 것도 나온다. 식재료도 많이 중복 된다. 어제 먹은 거 오늘 또 나오고. 기본적으로 맛이 없다. 이상한 실험정신이 있어서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만들고 급식 아줌마들과 친한 애들에겐 많이 준다. 애교부리면 많이 주기도 한다. (F고등학교)*

F고등학교에 다니는 면접자는 본인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의 질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었다. 급식비를 많이 내는데도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맛이나 양적으로도 부족하다고 했다. 학생이 불만족하는 급식이 시정 없이 계속되는 것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

(6) 개인정보 미보호

*출석부 정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교사 추천서 작성을 학생에게 시킨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원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된다.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부모가 이혼했고, 부모 학력이 어떨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노출 된다. 정신병이 있는 학생이 있는데 누군가가 교사가 시킨 출석부 정리를 하면서 이게 다 알려졌던 적도 있었다. (F고등학교)*

F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학생에게 시키는 문제적인 관행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문제인 부분은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F고등학교에 다니는 면접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출석부 정리와 같은 교사의 업무를 시켰다가 가족형태, 부모의 학력,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길 만큼 교사와 학생 간 위계관계가 뚜렷한 상황이며,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 IV. 마치며

본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 서울 관악구의 중고등학교에서 체벌, 두발 및 용의복장규제, 강제학습,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우열반 운영 및 성적을 근거로 한 차별 등 위법적이거나 인권침해적인 관행이 여전히 유의미한 빈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벌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고, 관악지역의 경우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을 받아 두발 및 용의복장규제, 강제학습,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성적을 근거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적 규제와 관행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직접체벌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43.8%였고, 간접체벌의 경우 43.5%였다. 교사로부터 폭언 및 수치심을 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6.4%였다. 77%의 응답자는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당하고 있었으며, 31%는 두발 길이 규제를 당하고 있었다. 용의복장규제와 관련하여서 응답자 중 77.2%는 ‘교복 변형’에 대하여, 73.5%는 ‘색조화장’에 대하여, 66.8%는 ‘액세서리’에 대하여 규제를 당한다고 응답했으며, 방한 목적의 ‘외투’를 규제당한 경우가 44.2%였다. 강제학습의 경우 23%의 응답자가 실질적으로 정규교과 외 수업 및 학습을 학교로부터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체벌금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되고 체벌이 비교육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여론이 늘어났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별점제 등으로 학생의 세세한 용의와 행동을 규제하는 행태도 존속하고 있다.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을 없애기 위한 교육 당국의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며,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와 소지품 검사 및 압수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여전히 상당수의 학교에서 정규교과 외의 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우열반 운영과 성적을 근거로 한 학생 차별도 심각한 상황인데, 일률적인 입시경쟁교육을 탈피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학생의 휴식과 여가시간, 각자의 고유한 잠재력을 존중하는 교육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부록 1. 관악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지

### 부록 2. 관악 학생인권실태조사 학교 앞 설문조사 사진

## 관악구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 [설문조사]

학교: \_\_\_\_\_ 학년: \_\_\_\_\_ 성별: 남 / 여

### 1. 체벌(폭력)

1-1. 교사가 학생에게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한 적이 있나요? (ex. 손바닥 맞기 등)

① 자주있다 ② 종종있다 ③ 가끔있다 ④ 전혀없다

1-2. 교사에 학생에게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서있기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을 한 적이 있나요?

① 자주있다 ② 종종있다 ③ 가끔있다 ④ 전혀없다

1-3. 교사가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욕설 등을 한 적이 있나요?

① 자주있다 ② 종종있다 ③ 가끔있다 ④ 전혀없다

### 2. 두발·복장 규제

2-1. 두발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길이 ② 펌 ③ 염색 ④ 없다 ⑤ 기타( )

2-2. 복장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교복변형 ② 악세사리 ③ 색조화장 ④ 신발 ⑤ 가방 ⑥ 외투 ⑦ 양말 ⑧ 스타킹 ⑨ 기타( )

### 3. 강제학습

3-1. 정규수업 외의 학습/수업(ex.야자, 보충수업, 0교시 등) 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① 강제 ② 동의를 받지만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다 ③ 강제가 아니다(자율)

3-2. 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학습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0교시 수업 ② 보충수업 ③ 방과후 ④ 야자 ⑤ 기타( )

### 4. 소지품 검사 및 압수

4-1.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한 적이 있나요?

① 자주한다 ② 종종한다 ③ 가끔한다 ④ 전혀 하지 않는다

4-2. 소지품 압수를 당한 적이 있나요?

① 자주한다 ② 종종한다 ③ 가끔한다 ④ 전혀 하지 않는다

### 5. 우열반 및 성적에 따른 차별

5-1.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눠 수업하는 경우가 있나요?(ex. 우열반, 수준별 수업 등)

① 예 ② 아니오

5-2. '이건 성적에 따른 차별이다!'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ex. 성적이 높은 학생만 우대받는 느낌, 성적에 따른 학내 선거 출마 제한, 성적을 근거로 한 모욕, 은근히 느껴지는 일상적인 차별 등)

① 예 ② 아니오 \*어떤 성적에 따른 차별이 있었는지 적어주세요! ( )

절 취 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메일주소	
연락처	

\*메일주소와 연락처는 선택사항입니다. 메일주소를 적어주시면 실태조사 결과물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성함, 메일주소, 연락처 등의 모든 개인정보는 당연 보호되며, 외부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참여·인권·실천  
관악청소년연대



2015. 06. 25 구암중·고등학교 앞



2015. 07. 06 문영여중·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앞



2015. 07. 15 <여유> 실태조사 팀원들



2015. 07. 16 인현중학교 앞



2015. 07. 20 난우중학교 앞



2015. 09. 04 미성중학교 앞

\*더 많은 활동사진들은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gwanakafford)

2016년 02월 18일 발행

펴낸 곳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도움주신 분

황은정

후원해주신 분들

김동이 김수정 곽명철

서정명 임환철 장천익

조동진

학교 앞 설문조사에

함께해주신 분들

김진희 미지 안팍

---

문의

gwanakafford@naver.com



